

名前:

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볼 것
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나 활용
도가 높은 사회이다. 인터넷을 할 수
있는 사람이라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
구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
있다. 그러한 시대가 된 탓인지, 최근
신문이나 잡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이
말다.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쟁에 대
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.
신문이나 잡지의 특징 중 하나가, 「
휴대성」이다. 몇 장의 쪽이에 여러
정보를 집어넣어 인쇄한 것이다. 가볍
고 들고 다니기 편한 것은 당연하다.
허나 인터넷은 다르다. 최근 기술의
발전으로 휴대전화로도 인터넷이 가능하
게 되었다고는 하나, 휴대전화는 화면이
작다. 신문이나 잡지처럼 한 화면에
대량의 정보를 공급하기엔 아직 늦다.
이 것을 생각하면 인터넷에 가볍게 들
고 다닐 수 있는 「휴대성」을 기대하기

엔 아직 이르는 느낌이다.
신문이나 잡지의 특징을 하나 더 세
술해 보자면, 그것은 바로 「보관성」이
다. 물론 인터넷으로도 정보의 보관
은 가능하다. 하지만 여기서 「보관성」
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. 바로 근처
에 있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— 그런
「보관성」을 말한다. 특히 잡지같은
것은, 책처럼 그 나름의 높은 가치를 갖
게 되는 일도 있다. 중고 시장이 있고,
가치있는 잡지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
「보관성」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. 거
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
에는 그러한 「보관성」이 없다.
기술의 발전은 뒤쳐지는 자를 기다려
주지 않는다. 실제로 전자책 등 여러
가지 발명품이 나와있다. 하지만 「책」
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남아있는 이상,
신문이나 잡지는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
한다.

1800字